



2면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 방향 공유

전주매일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음 2월 11일) 제32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일 오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국회의원과 박복희, 학생, 국군장병 등 도민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갖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현장에서 거행... 도민 애국심 고취
독립선언서 낭독·독립유공자 훈장 전수·만세삼창 순 진행

전북도는 1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및 광복회원, 학생, 국군장병 등 도민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여한 도민들은 104년 전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선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합과 단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의지와 함께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날 3·1절 기념식은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3·1절 기념사, 독립유공자 및 합창단의 기념공연,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3·1운동을 통해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선열들의 굳은 의지와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며, "104년 전, 선조들이 끊임 없이 도전한 끝에 성공을 이루어 낸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새롭게 출발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념행사 이후 김관영 도지사는 애국선열의 영령을 추모하고자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독립운동추념탑을 참배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50여명도 함께 했다.

참배행사는 국경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도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오는 5일까지 전도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김재훈기자

도-기재부, 현안사업 집중 논의

김완섭 예산실장 등 예산실 간부들, 전북 방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찾아 운영현황 청취

국가예산간담회에서 전북도 건의사업 토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간부들이 지역현안사업 점검과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달 28일 전북을 방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현장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북도를 찾은 김완섭 예산실장 일행은 첫 번째 일정으로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1ha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829억원(국비 549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1월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했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첨단 농업기술 확산과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한 김 실장 일행은 스마트농업 실증 온실과 청년창업보육 실습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운영현황을 청취했으며,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와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국가예산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과 전북도 주요 건의사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도정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도정비전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도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청정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전주기 수소산업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간부들이 지난달 28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한 뒤,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육성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협과 및 설 계용역비(59억원) 내년도 예산보영과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예산실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전북

도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체계도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간담회 이후 마련된 김완섭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전북도 현장방문이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인식확대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전북도 건의사업들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재훈기자

새만금잼버리 조직위, 5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행안부장관·문체부장관·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추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했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0년 7월에 중앙 및 지방정부, 스카우트 등 민간 전문가 152명으로 구성·출범해 여성가족부장관 및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위원장 3인을 추가 선임해 5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그동안 조직위가 여성가족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협력해 행사를 준비해왔고, 많은 인원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력과 자연재난 대응 경찰청과 소방청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세계잼버리에 대한 대내외 홍보와 K-컬처 등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위는 총회를 통해 3개 기관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진행해 온 사항들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